

Economy Brief

국내 수출경기 호황의 끝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사상 최고치 6월 수출에서 봐야할 것: 1)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수출액, 2) 일평균 수출액 40억 달러 상회, 3)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 비중 사상 최고치, 4) 고유가 여파에도 무역수지 흑자 급증, 5) 대중국 수출 급증, 5) 반도체 제외 수출 미약한 회복세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수출경기 호황의 끝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음

사상 최고치 6월 수출에서 봐야할 것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6월 수출액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월간 수출액 기준 역대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했다. 6월 수출액은 여러가지 기록을 경신했다.

첫째, 월간기준 수출규모가 역대 최고치다. 3월 사상 처음으로 월간 기준 8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3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수준을 유지한 동시에 2개월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국내 월간 수출규모가 한단계 레벨업된 것이다.

둘째, 당사가 코스피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는 일평균 수출액도 사상 처음으로 4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3월 42.8억 달러를 기록했다.

셋째,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5월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2.3%다.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쏠림 현상은 반도체 수출 비중으로 설명된다.

넷째, 무역수지 흑자 규모 급증이다. 5월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69.5억 달러이며 1~5월 누적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019억 달러로 이전 최고치였던 지난 17년(1~5월) 당시 952억 달러 수준을 상회했다. 특히 고유가라는 악조건하에서도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더욱이 <그림3>에서 보듯 고유가에 따른 원유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를 반도체 무역수지 흑자가 압도하고 있음은 국내 수출경기가 고유가 충격을 이겨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대중국 수출 호조다. 5월 대중국 수출액은 189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80.9% 급증하면서 대미 수출액(159.7억 달러)을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국내 수출을 견인 중이다. 특히, 반도체 수출 호황에도 중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4>에서 보듯 한국의 대중국 및 대중국+홍콩 반도체 수출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이 전체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약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도 완만한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5월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 16.4%로 두자리수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 수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두자리대 수출증가율은 양호한 수출을 뒷받침해 준다.

국내 수출경기 호황의 끝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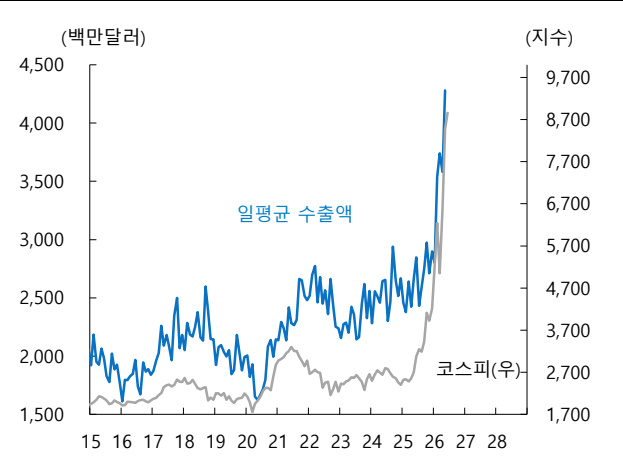
국내 수출 호황의 지속 여부는 당연히 반도체 수출 경기에 달려있다. 결론적으로 반도체 수출호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7>의 역대 한국의 반도체 슈퍼사이클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이번 반도체 수출사이클은 이전 사이클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자본지출 확대 전망과 더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국내 반도체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중국의 AI

관련 투자도 확대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반도체 가격지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은 반도체 슈퍼 호황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물론 이란 리스크 지속에 따른 고유가가 여전히 하반기 수출경기의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란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국내 수출 경기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며 동시에 유가 하락으로 국내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여지가 크다.

결론적으로 국내 수출경기 호황의 끝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1. 사상 처음으로 일 평균 수출액이 40억 달러를 돌파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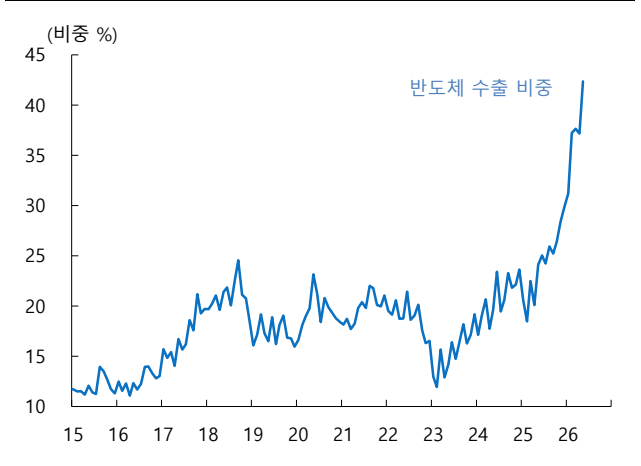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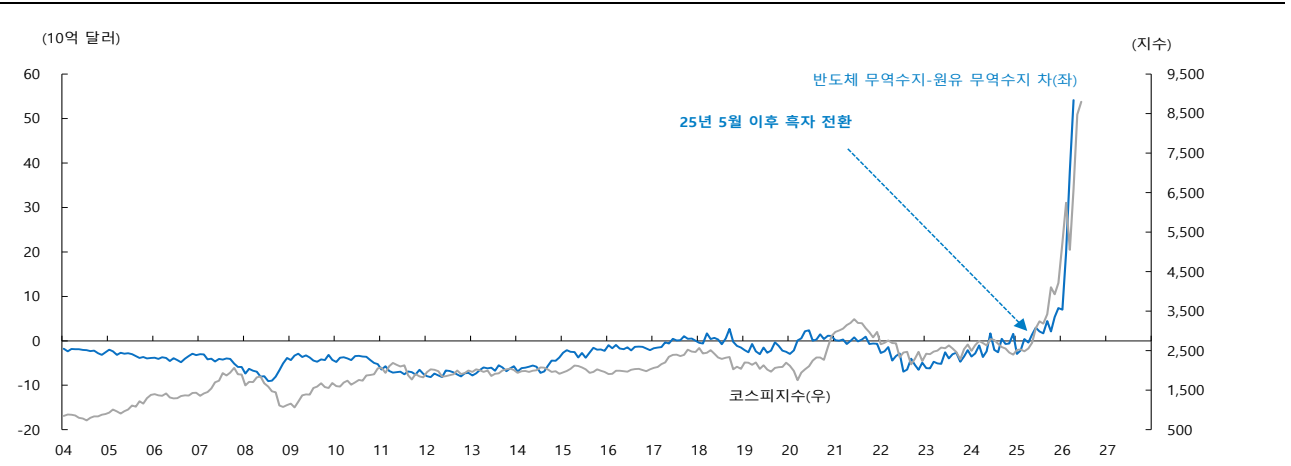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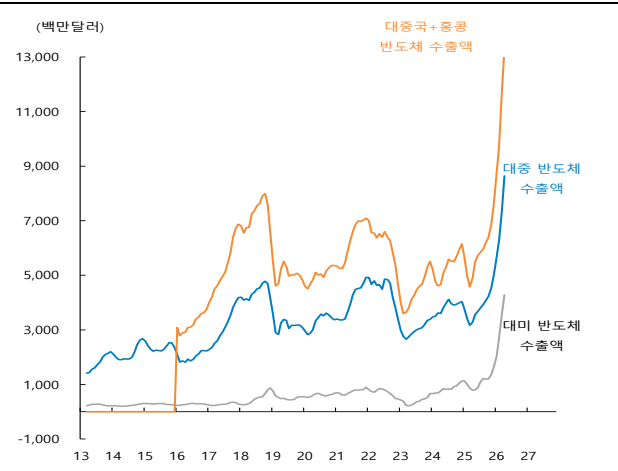


그림3. 고유가 악조건하에서도 반도체 무역수지 흑자 급증이 원유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크게 상회. 이전 고유가 당시와는 뚜렷한 차별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반도체 수출을 견인 중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반도체 제외한 수출 증가율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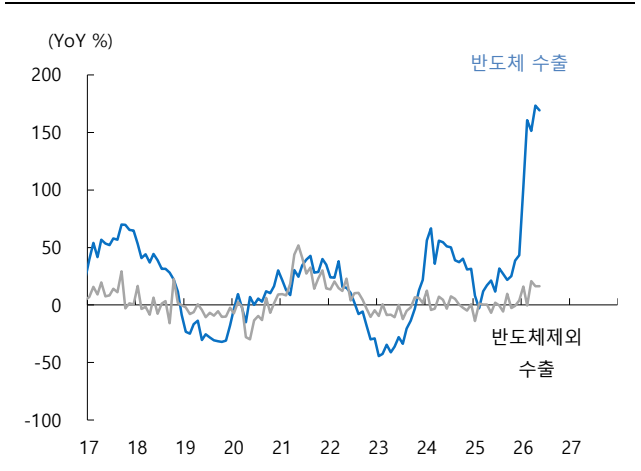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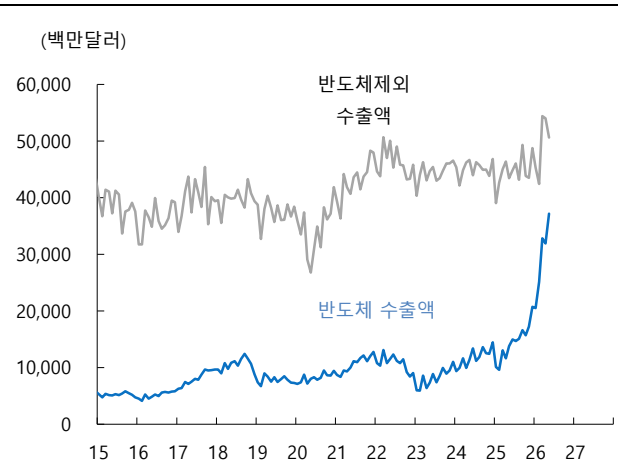


그림6. 다만 반도체 제외 수출액 규모는 팬데믹 직후 최고치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못하고 있음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7. 이전 반도체 수출 슈퍼사이클과 현 반도체 수출 슈퍼 사이클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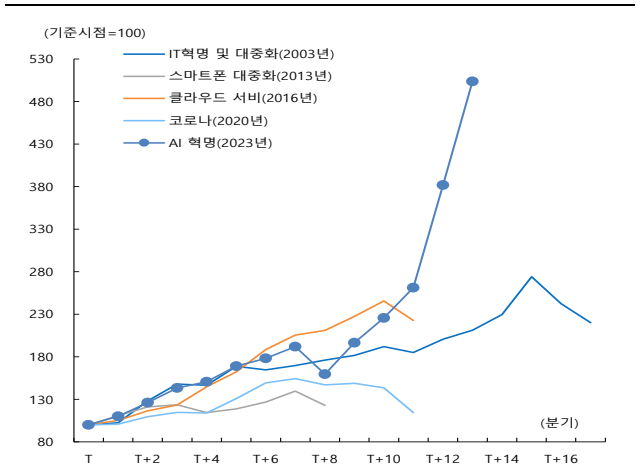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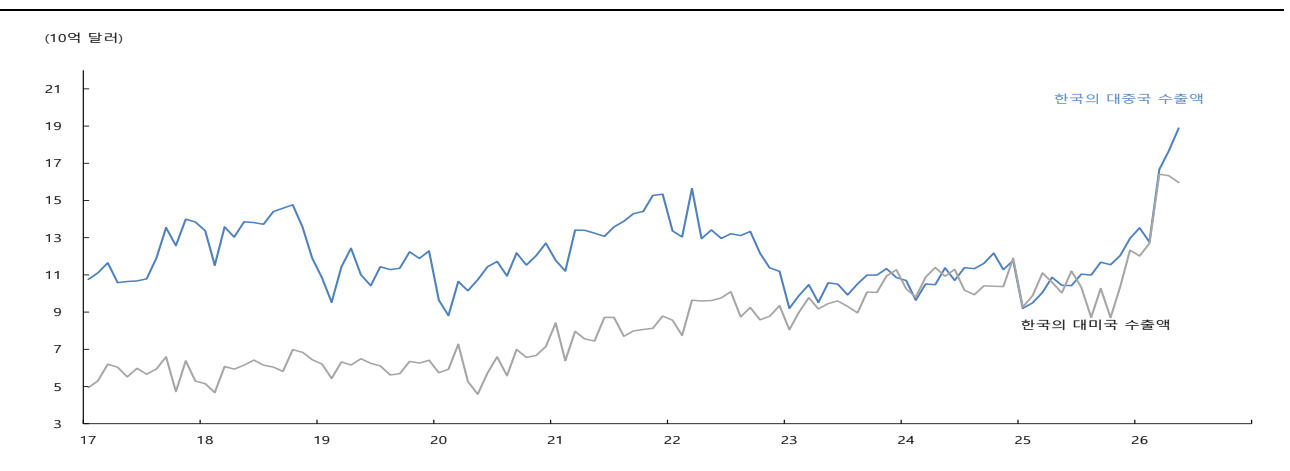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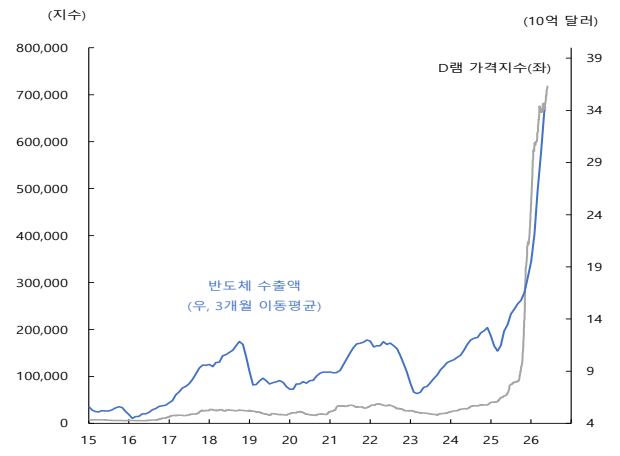


그림8. 올해 들어 대중국 수출 급증이 대미국 수출 증가세를 압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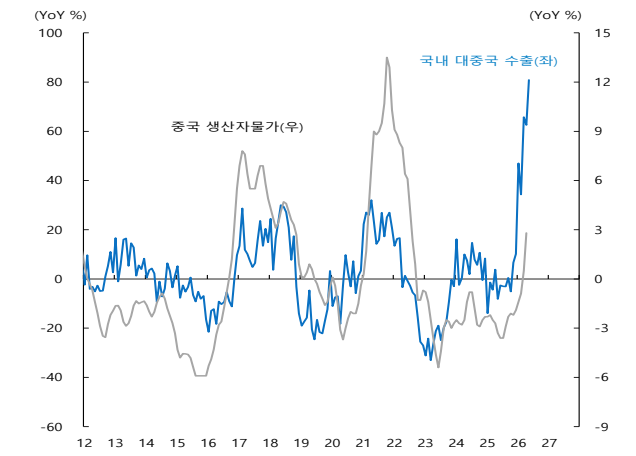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9. D램 가격지수 상승세 이어지고 있음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0. 중국 생산자물가 상승률과 대중국 수출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박상현)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